

# 방임 및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 조절효과

## Self-respect Moderating Effects on Adolescents with Emotional Problems due to Neglect and Abusive Experiences

김숙향\*, 김형모\*\*

경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ug-Hyang Kim(kimsughyang@naver.com)\*, Hyung-Mo Kim(hkim66@hanmail.net)\*\*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방임 및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방임수준보다 학대경험 수준이 높았으며, 일반적 특성인 성별, 주관적 가정형편이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방임과 학대경험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정서문제인 우울수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신체증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방임 및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강력한 조절효과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학대경험과 정서문제 간에 응답자의 자아존중감 평균을 중심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기울기 검정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방임 및 학대경험 청소년이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간에 부정적 정서 상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변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후속연구로 제언하고자 한다.

■ 중심어 : 방임 | 학대경험 | 정서문제 | 자아존중감 | 조절효과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self-respect moderating effect on adolescents with emotional problems because of neglect and abusive experienc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abusive experiences was higher than that of neglect in adolescents. General characteristics including genders and individual family situations were found to be the influences causing emotional problems in adolescents. Second, adolescents with high levels of neglect and abuse experienced high levels of depression, social anxiety, aggression and physical symptoms. Third, even though self-respect did not have a strong moderating effect on the emotional problems of adolescents who suffered neglect and abuse,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abuse experience and the emotional problem in the inclination test results for the high and low group based on the average of the self-respect of the respon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need for a stronger variable to reduce the negative emotional state among adolescents experiencing neglect and abuse is related to emotional problems.

■ keyword : Neglect | Abusive Experiences | Emotional Problems | Self-respect | Moderating Effect |

\* 본 연구는 2017학년도 경기대학교 대학원 연구원장학생 장학금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접수일자 : 2017년 10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1월 20일

수정일자 : 2017년 11월 18일

교신저자 : 김형모, e-mail : hkim66@hanmail.net

## 1. 서론

부모로부터 방임 및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부정적 정서인 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1][2]. 이러한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문제는 청소년 개인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비행, 이탈, 범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2차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임은 극명한 사실이다. 또한 부정적 정서는 청소년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 이후까지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3]. 이를 뒷받침 하는 결과로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 1.6%(542건)가 어릴 적 학대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많은 연구에서도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우울 수준과 공격성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5-10]. 이처럼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부정적 정서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부정적 정서문제에 노출된 청소년은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에 따르면, 방임과 학대 경험으로 인한 정서문제로 공격성, 충동, 거짓말 등이 8,093건(36.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일환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2014년 학대예방과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처벌법이 대폭 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4].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이 발표한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가정 내 학대 사례가 9,641건(82.3%)이며,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사례가 9,348건(79.8%)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연령별로는 13세~15세 22.2%, 10세~12세 19.5%, 7세~9세 18.1%, 4세~6세 14.4%, 16세~17세 11.6%, 1세~3세 11.2%, 1세 미만 2.9% 순으로 보고되었으며, 13세~17세 아동학대는 33.8%이다. 또한 49.1%가 일주일에 1번 이상 학대를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4]. 학대유형으로는 중복학대 45.6%, 정서학대 17.5%, 방임 17.2%, 신체학대 16.1%, 성학대 3.7% 순으로 나타났다[4].

이처럼 「아동학대 처벌법」을 강화하여 학대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적극적 개입에도 학대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청소년이 부정적 정서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도 학대경험 정도가 심각한 청소년의 정서문제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3][14]. 이와 같이 부모 또는 주양육자로부터 학대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인한 학대피해 청소년의 정서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인과 관계에만 주목하기 보다는 학대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외부 기제 강화와 더불어 청소년 스스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제를 강화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심리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에 주목하여 보고자 한다.

심리학자인 Erickson(1968)은 성숙한 심리와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함에 있어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웅택·이은경(2016)의 연구결과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우울 관계에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자아존중감이 부정적 정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력 관계를 약화시키는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 이 외에도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18], 학교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9]. 이처럼 부정적 정서문제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성인기로 성장, 발달하는데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임 및 학대경험이 정서문제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청소년시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시기이며, 무엇을 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의 특징에 비추어 본다면 방임과 학대가 각각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방임과 학대를 하나의 요인인 학대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과대해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특징을 반영하여 방임과 학대를 각각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에 방임 및 학대경험이 정서문제인 공격성, 신

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학대경험이 정서문제 간에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1. 방임 및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방임 및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은 조절효과를 갖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방임 및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방임 및 학대를 경험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정서문제에는 부정적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2],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게서도 방임 및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이 공격성, 위축 등 정서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특히 학대는 신체, 정서, 성학대 중 한 가지 유형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복학대로 특히 신체 학대와 정서학대 중복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 가정 내에서 부모 또는 양육자로부터 방임이나 학대를 경험하는 것은 정서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축, 우울,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이충권·양혜련(2015)의 연구결과 정서문제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학대경험이 위험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아동학대 처벌법 이전에는 방임이 단순한 가정 내에서의 소홀함으로 오인되었으나, 핵가족화라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맞벌이 확대는 청소년이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 처벌법에 방임이 학대의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성인기로

발달함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Colman & Widom(2004)과 Grogan-Kaylor & Otis(2003)의 연구에서도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은 성인기에 사회 부적응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정서문제의 하위 요인 중 공격성은 Bandura(1973)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관찰하고 직접적 경험 속에서 학습되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격성이 학습되는 과정은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에게서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은 극명한 사실이다. 김기환(2009)의 연구결과에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중 방임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이 공격성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재철·이경숙·성경주(2012)와 김평화·윤혜미(2013)의 연구에서는 학대와 방임경험이 많을수록 정서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회적 위축은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 학교생활에도 부적응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19]. 또 다른 연구에서는 특히 방임이 사회적 위축을 야기하는 주요요인으로 보고되었다[26]. 이처럼 방임과 학대를 경험하게 되면 청소년 개인의 내재적 및 외현화에 악영향을 미치며, 성인기에 되어서도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 백종림·정익중(2013)의 연구에서는 부부폭력 목격경험과 학대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부부폭력을 목격한 아동청소년보다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선행연구들을 상술한 바와 같이 종합해 보면, 대다수의 연구에서 방임과 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과 청소년은 정서문제가 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며, 정서문제의 특성 중 가장 주를 이루는 것이 공격성, 위축,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등으로 보고되었다[9][33-40].

### 2.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부여하는 주관적 평가로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8].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공격성과 충동성이 높으며,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수준 또한 높다[29]. 자아존중감

이 낮은 청소년은 위기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부적응행동을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익중·이지언(2011)의 연구결과에서는 낮은 자아존중감은 부정적인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강석기·한상훈·박명신(2013)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노와 우울 및 불안 관계에서 높은 자아존중감이 불안을 약화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방임 및 학대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자신에 대해 낮은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데,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정적 정서에 그대로 수용하게 될 것이며,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부정적 정서를 약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Samivalli(2001)는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낮은 사람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서수균(2007)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분노와 우울에 취약하며, 적대감이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방임과 학대를 경험하는 청소년은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 상황에 대처하여 정서문제를 약화시켜야만 발달단계의 중심과제라 할 수 있는 성격발달과 긍정적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가 정서문제, 학교생활, 자살생각, 스트레스,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12][17][18][41-43]. 방임 및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부정적 정서로 인한 정서문제에 노출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악영향을 미치며, 방임 및 학대 경험은 대물림의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을 극복하여 생애주기에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한 정서문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본다. 그리고 Kugler at al(2012)의 조사결과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학대피해아동 중 95% 이상이 신체화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기에 성적학대를 경험한 대학생 중에서 성인기에 신체증상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4].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높은 자아존중감은 방임 및 학대로 인해 노출된 정서문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에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주관적 평가를 함으로써 과업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본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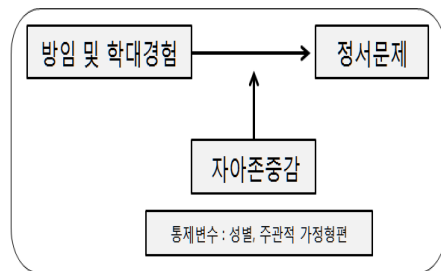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다단계화 집락표집 방식으로 조사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데이터 초4 패널 중에서 6차년도(2015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6차년도(2015) 데이터는 중3에 해당한다. 6차년도(2015) 데이터를 활용한 이유는 데이터가 2016년도 9월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최근에 중3학년의 정서상태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활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정서문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하위요인 중 주의집중은 모두 학습과정에서의 정서상태에 대한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3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방임 및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다단계화집락표집으로 선정된 2,378명 중에서 연구의 모든 변수들의 결측값, 무응답이 있는 대상은 제외하였으며, 중1이라고 응답한 1명도 제외한 나머지 2,057명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 3. 주요변수의 측정

#### 3.1 독립변수 : 방임 및 학대

학대는 부모(양육자)가 자녀에게 행해지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2가지 유형과 방임 모두 3가지 유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측정도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 Y23의 23번~29번(총 8문항)이며,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임(4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체·정서학대(4문항)는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 역코딩한 점수로 투입하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계수인 방임  $\alpha=.726$ , 학대  $\alpha=.844$ 이다.

#### 3.2 종속변수 : 정서문제(공격성, 우울,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정서문제 중 공격성, 신체증상 측정도구는 조봉환·임경희가 개발한 자기보고형 검사지를 수정보완 하였으며, 사회적 위축 측정도구는 김선희·김경연이 개발한 행동문제 문항을 수정, 보완되었다[46]. 또한 우울 측정도구는 김광일·김재환·원호택이 개발한 간이정신진단 검사지 13문항 중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 보완되었다[46]. 이와 같이 정서문제는 공격성 6문항, 신체증상 8문항, 사회적 위축 5항, 우울감 10문항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 Y13의 8번~36번(총 29문항)이며,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문제는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 역코딩한 점수로 투입하였다. 본 연구의 하위요인 정서문제의 신뢰계수인  $\alpha=.934$ 이다.

#### 3.3 조절변수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의 척도를 고려해 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에서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47]. 자아존중감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 Y14의 1번~10번(총 10문항)이며,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 긍정적 자아평가의 내용 5개 문항은 역코딩한 점수로 투입하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계수인  $\alpha=.840$ 이다.

#### 3.4 통제변수

선행연구결과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성별(1=남, 0=여)은 더미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으며, 주관적 가정형편(1=매우 잘 사는 편, 2=잘 사는 편, 3=약간 잘 사는 편, 4=보통 수준, 5=약간 못 사는 편, 6=못 사는 편, 7=매우 못 사는 편)은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다단계화집락 표집 방식으로 조사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데이터 초4 패널 중에서 6차년도(2015년) 데이터를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방임 및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모형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방임 및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다중공선성 확인 후 조절회귀분석검정(Moder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중3 남학생이 1,088명(52.9%), 여학생이 969명(47.1%)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가정형편 정도에 대해 ‘매우 잘 사는 편’ 46명(2.2%), ‘약간 잘 사는 편’ 239명(11.6%), ‘잘 사는 편’ 279명(13.6%), ‘보통’ 1,294명(62.9%), ‘약간 못 사는 편’ 159명(7.7%), ‘못 사는 편’ 36명(1.8%), ‘매우 못 사는 편’ 4명(0.2%)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인지하는 주관적 가정형편 정도는 보통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일반적 특성(N=2,057)

변수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학생	1,088	52.9
	여학생	969	47.1
주관적 가정형편	매우 잘 사는 편	46	2.2
	약간 잘 사는 편	239	11.6
	잘 사는 편	279	13.6
	보통	1,294	62.9
	약간 못 사는 편	159	7.7
	못 사는 편	36	1.8
	매우 못 사는 편	4	0.2

### 2.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기술통계 결과 청소년이 인지한 주관적 가정형편은 3.68(SD=.93)이며, 방임 수준은 1.81(SD=.61), 학대 수준은 3.36(SD=.47), 정서문제는 1.91(SD=.47), 자아존중감은 2.99(SD=.45)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임 수준 평균이 학대 수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방임 및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 조절효과 검증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상호작용항 간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링 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 조절효과의 위계

적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회귀모형 적합도를 판단 할 수 있는 F값이 모델 1보다 (F=99.811, p<.001) 모델 2(F=257.106, p<.001)의 모형 적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모델 3(F=184.138, p<.001)에서는 낮아졌으나 회귀모형 적합도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모델 1이 16.3%로 나타났으나 모델 2에서는 22.2% 증가한 38.5%이며, 모델 3에서는 38.6%로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은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과 연령( $\beta = -.154, p < .001$ ), 주관적 가정형편( $\beta = .113, p < .001$ ), 방임( $\beta = .186, p < .001$ ), 학대( $\beta = -.251, p < .001$ ) 변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모델 2는 자아존중감 조절변수를 추가 투입한 결과 연령( $\beta = -.116, p < .001$ ), 주관적 가정형편( $\beta = .044, p < .05$ ), 방임( $\beta = .056, p < .01$ ), 학대( $\beta = -.115, p < .001$ ) 변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자아존중감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방임 및 학대가 정서문제 미치는 영향 간에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원분산분석을 통한 조절효과 검증 결과 [그림 2], [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이원분산분석을 위해 독립변수인 방임과 학대 그리고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평균 미만과 평균 이상 두 집단으로 범주형 변수로 변환하여 일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방임은 상호작용항 F값이 1.875, 유의확률은 .171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대는 상호작용항 F값이 7.879, 유의확률 .005(p<.01)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에 따른 기술기가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즉 학대경험은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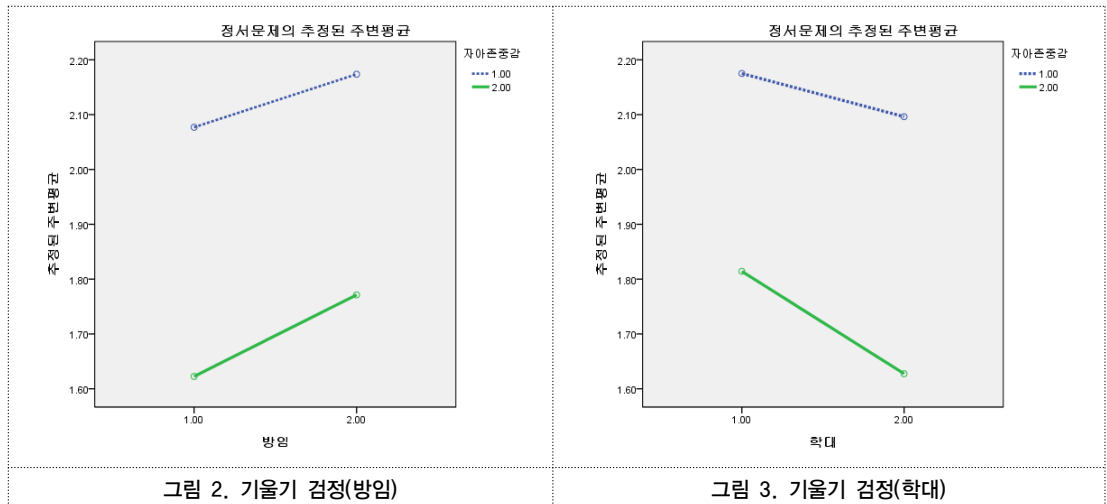
표 2. 기술통계(N=2,057)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최소값	최대값
주관적 가정형편	3.68	.93	1	7
방임	1.81	.61	1	4
학대	3.36	.47	1	4
정서문제	1.91	.47	1	4
자아존중감	2.99	.45	1	4

표 3. 방임 및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 조절효과(N=2,057)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B(SE)	β	B(SE)	β	B(SE)	β	
통제변수	연령	-.147	-.154***	-.110	-.116***	-.112	-.117***
	주관적 가정형편	.057	.113***	.023	.044*	.023	.044*
독립변수	방임	.172	.186***	.051	.056**	.050	.055**
	학대	-.196	-.251***	-.089	-.115***	.003	-.123***
조절변수	자아존중감			-.553	-.527***	-.049	-.524***
상호작용항	방임*자아존중감					.003	.001
	학대*자아존중감					-.049	-.030
상수		2,130***		3,751***		3,769***	
R <sup>2</sup>		.163		.385		.386	
F(sig)		99,811***		257,106***		184,138***	

\*p<.05, \*\*p<.01, \*\*\*p<.001



## V. 결론

본 연구는 방임 및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방임 수준( $M=1.81$ )보다 학대경험 수준( $M=3.36$ )이 더 높았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주관적 가정형편은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방임과 학대경험도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재철·이정숙·성경주(2012)의 연구결과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부정적정서 수준이 높은 결과와 같은 맥락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충권·양혜린(2015)의 연구결과에서도 방임과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방임과 학대경험을 많이 한 청소년의 우울수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신체증상 수준이 높다.

둘째,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투입한 조절회귀분석결과 모형적합도( $F=184.138, p<.001$ ), 설명력 38.6%로 나타났으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 투입결과 방임 및 학대가 정서문제 미치는 영향 대해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기울기 검증까지 한 결과 기울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학대 경험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으며,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강력한 조절효과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평균 이하와 이상의 두 집단으로 기울기 검정을 한 결과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보다 정서문제가 나아짐을 알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방임과 학대를 학대로만 보았지만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임과 학대를 각각 확인해 본 연구결과 방임보다 학대가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이 경험하는 방임 및 학대

로 인한 정서문제가 성인기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외에도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정서문제인 공격성, 우울,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방임과 학대경험에 있어 청소년 스스로 위험요인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기제에 대한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방임·학대에방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적극적 홍보와 교육이 요구되며, 청소년이 방임 및 학대를 경험하더라도 부정적 정서문제를 조절할 수 있는 강력한 기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아동학대에 대해 우리나라도 아동학대 처벌법을 강화하고, 학대에 대한 예방적 차원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며, 부모 및 관련종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청소년의 정서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청소년의 2차 사회문제는 날로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최근 초등생 살해사건 10대 가해자,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강릉 집단 폭행 사건 등 가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점이다. 이형진·황동진(2015)의 연구에서도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간에 자아존중감이 강력한 조절효과를 가지지는 못하나, 학대경험과 정서문제 간에 응답자의 자아존중감 평균을 중심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기울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타인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며, 자아존중감 이외에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변인에 대한 후속연구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사전예방의 중요성과 사후관리를 통해 부정적 정서문제를 안고 있는 학대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개입과 동시에 우울,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은 각각의 개별화를 통한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로 Bandura(1973)에 의하면 공격성은



학습되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학대피해 청소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 정서 상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변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현재 발현되고 있는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결론을 토대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방임 및 학대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우선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후 교육이 아닌 적극적인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이어야 한다. 적극적 예방 프로그램으로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이 임신과 동시에 관련기관을 통한 바람직한 양육태도의 교육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예방에도 불구하고 방임 및 학대로 인해 정서문제에 노출된 청소년 한 가지 정서문제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정서문제를 겪게 되므로 전문적인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1] 이충권, 양혜린, “청소년의 학대·방임경험이 정서 문제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문제와 또래관계 간 상호인과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7권, 제1호, pp.261-285, 2015.
- [2] 김재철, 이경숙, 성경주, “부모학대가 청소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제20권, pp.119-139, 2012.
- [3] P. E. Mullen, J. I. Marcin, J. C. Anderson, S. E. Romans, and G. P. Herbison, “The long-term impact on the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abuse of children: a community study,” child abuse & Neglect, Vol.20, No.1, pp.7-21, 1996.
- [4]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6.
- [5] 안지연, 손영은, 남석인,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12호, pp.261-284, 2014.
- [6] 남원희, 현은강,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체벌 실태 및 체벌 수준에 따른 아동의 분노표현 행동,” 한국아동권리학회, 제7권, 제7호, pp.271-287, 2013.
- [7] 홍영수, “부모학대가 아동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정서적 지지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30권, 제12호, pp.225-244, 2010.
- [8] 전해숙, “아동학대 및 아동의 심리사회적 자원이 아동우울에 미치는 영향: 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30권, 제12호, pp.55-77, 2008.
- [9] 김형모, 김영민, “부부폭력 목격과 아동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제11권, 제1호, pp.31-60, 2007.
- [10] D. A. Simons and S. K. Wurtel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use of corporal punishment and their children’s endorsement of spanking and hitting other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Vol.34, No.9, pp.639-646, 2010.
- [11] H. Dubowitz and S. Bennett, “Physical abuse and neglect of child,” The Lancet, Vol.369, No.9576, pp.1891-1899, 2007.
- [12]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5.
- [13] 김기환, “부모의 자녀학대가 보호관찰청소년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호관찰, 제9권, 제2호, pp.215-258, 2009.
- [14] 김재엽, 정윤정, 이진석, “가정 내 자녀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지관계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21권, pp.199-144, 2009.
- [15] E. H. Eri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1968.
- [16] 이용택, 이은경,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우울,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 문화포럼 학술자료, 제48호, pp.61-85, 2016.

- [17] 강석기, 한상훈, 박명신, “고등학생의 분노가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제34권, 제1호, pp.91-114, 2013.
- [18] 이지연, 정익중, 장유다, 주영하, “청소년의 휴대폰 의존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와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7권, 제3호, pp.1-25, 2015.
- [19] 이봉주, 민원훈, 김정은, “청소년 사회적 위축문제의 발달레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8호, pp.317-346, 2014.
- [20] M. D. Braquehais, M. A. Oquendo, E. Baca-Garcia, and L. Sher, “Is impulsivity a like between childhood abuse and suicide?,” *Comprehensive Psychiatry*, Vol.51, No.2, pp.121-129, 2010.
- [21] R. A. Colman and C. S. Widom, “Childhood abuse and neglect and adult intimate relationships: A prospective study,” *Child Abuse & Neglect*, Vol.28, No.11, pp.1133-1151, 2004.
- [22] A. Grogan-Kaylor and M. D. Otis, “The effect of childhood maltreatment on adult criminality: A tobit regression analysis,” *Child Maltreatment*, Vol.8, No.2, pp.129-137, 2003.
- [23] A. Bandura,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Oxford, England: Prencice-Hall, 1973.
- [24] 김평화, 윤혜미,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결핍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제14권, pp.217-240, 2013.
- [25] 박기원,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제35권, 제1호, pp.1-15, 2014.
- [26] Hoffman-Plotkin & Twentyman, “A multitude assessment of behavior and cognitive deficits in abused and neglected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Vol.55, pp.794-802, 1984.
- [27] 백종림, 정익중, “부부폭력목격경험과 학대경험이 아동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 분석,”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29권, 제1호, pp.121-142, 2013.
- [28] J. A. Rosenberg,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9] 장휘숙, *청년심리학*, 박영사, 2004.
- [30] 정익중, 이지연, “청소년기 비판과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38권, pp.60-80, 2011.
- [31] C. Salmivalli, “Feeling good about oneself, being bad to others? remarks of self-esteem, hostility, and aggressive behavior,” *Aggressive and Violent Behavior*, Vol.6, pp.375-393, 2001.
- [32] 서수균, “자존감과 자기에 수준에 따른 분노사고, 신념, 분노표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제19권, 제3호, pp.719-734, 2007.
- [33] 이형진, 황동진,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3권, 제1호, pp.5-31, 2015.
- [34] 김재엽, 최권호, “중복학대 피해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비행행동: 신체학대와 방임의 중복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제3호, pp.193-213, 2012.
- [35] 정익중,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경로,” 아동학회지, 제29호, 제4호, pp.79-95, 2012.
- [36] 김재철, 최지영, “부모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제20권, 제1호, pp.19-32, 2011.
- [37] 김광혁,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제24권, 제2호, pp.27-45, 2009.
- [38] 황은수, 성영혜, “아동의 학대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인식정서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제8권, 제9호, pp.73-89, 2006.
- [39] 신혜영, 최혜림,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15권, 제2호,

pp.295-307, 2003.

- [40] H. B. Hodgdon, *Child maltreatment and aggression: The mediating role of moral disengagement,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callousness among juvenile offenders*, Unpublished doctor's thesis. Temple University, Pennsylvania, Philadelphia, America, 2009.
- [41] 이봉주, 손선옥, 김윤지, “아동·청소년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 조절 효과,” *학교사회복지*, 제31권, pp.37-58, 2015.
- [42] 김자영, “아동의 정서학대 경험 수준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제34권, 제3호, pp.286-316, 2014.
- [43] 이선희, 전종철, “남·여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8권, pp.173-202, 2012.
- [44] B. B. Kugler, M. Bloom, L. B. Kaercher, T. V. Truax, and E. A. Storch, “Somatic symptoms in traumatized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Vol.43, No.5, pp.661-673, 2012.
- [45] K. Sesar, N. Simic, and M. Barisic, “Multi-type childhood abuse, strategies of coping, and psychological adaptations in young adults,” *Croatian Medical Journal* Vol.51, No.5, pp.406-416, 2010.
- [4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7.

저 자 소 개

김 숙 향(Sug-Hyang Kim)

정회원



- 2010년 2월 :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 2014년 8월 : 경기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7년 8월 : 경기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박사수료)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김 형 모(Hyung-Mo Kim)

정회원



- 1990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1994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1996년 6월 : University of Minnesota, School of Social Work(M. S. W.)

- 2000년 5월 : University of Minnesota, School of Social Work(Ph.D.)
  - 2001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